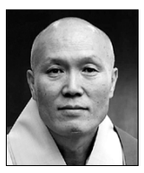
일 주 문



화쟁으로 본 낙태 집담회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스님은 2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전법회관서 집담회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법회 창립

승석 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은 3월 4일 오전 10시 전등사 무설전에서 어린이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

가섭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11회 불교상담심리사 1·2급 자격고시를 개최했다.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3월 11일 오후 1시 동국대 본관서 '출범 18주년 및 제5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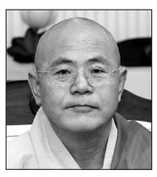


대불련 새학기 템플스테이

양희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3월 16~18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주지 인사

미타정사 설주 · 현성정사 마가 스님 등



설주 스님



마가 스님



정수 스님

서울 궁동 미타정사와 홍은동 현성정사, 고양 흥국사 주지에 각각 설주 · 마가 · 정수 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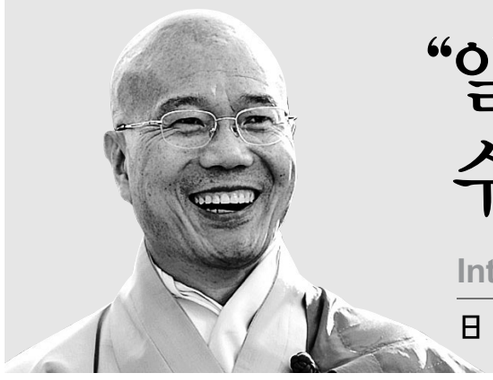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미타정사, 현성정사, 흥국사 신임주지 임명장을 각각 전달하고, 원활한 사찰 운영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주지는 만인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지도자다. 항상 중생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강조했다.

설주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수계(사미계)했다. 백양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고산사 · 영상정사 주지를 역임했다.

마가 스님은 현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수계(사미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마곡사 포교국장, 중앙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마음치유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수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일본 속 한국불교, 수행 · 힐링사찰 운영"

Interview

日 나가노 금강사 신임주지 법현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포들이 세운 뜻깊은 사찰
법당 개방, 스님 상주하며
한국불교문화 담아 차별화
4월 8일 주지취임법회 예정

"일본불교는 좋게 표현하면 민족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 재세시 특성이 많이 사라진 점은 아쉽습니다. 수행보다는 천도재나 상장례 문화가 발달했으니까요.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서 수행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찰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인 법현 스님이 오는 4월 8일 열린선원 자매사찰인 일본 나가노 금강사 신임주지로 취임한다. 금강사는 1970년대 말 재일교포들이 십시일반 모연해 지은 한국 사찰로서 그동안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스님들이 다수 주지를 맡아 운영했다. 한때는 운영이 어려워 경매에 넘어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사업에 성공한 몇몇 불자들이 구해냈다. 특히 법현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금강사 주지직 요청을 받았지만 그간 사양해오다 일본 한국사찰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냈다.

법현 스님은 "금강사는 나가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중요한 사찰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쪽 사찰 일을 맡기엔 능력이 부족해 금강사 주지를 거절했지만 최근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에 원력을 세웠다"면서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참선지도와 설법, 축원 등을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불교와는 차별화 된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현 스님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황에서 금강사가 비어있지 않도록 1년 내내 기도를 맡을 스님과 와세다대학서 유학한 상좌 스님이 상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 법당을 공개하지 않는 일본사찰과 달리 언제든지 방문객이 법당과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사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현 스님이 서울서 운영하는 '열린선원' 이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법현 스님은 "일본사찰은 법당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당연히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다. 다만 법당 앞 불전함에 동전을 던지게 해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그나마 불상을 12년에 1번 공개한다. 그걸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불교 본질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열린 사찰을 계획하게 됐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법현 스님은 이어 "경내에 온천수가 나오는 사찰은 금강사가 일본서 유일하다. 요사채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힐링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려 한다"며 "나가노를 찾는 한국인들에겐 특별한 성지순례 장소로, 일본인들에겐 이색적인 불교문화를 접하는 마당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현 스님은 태고종 총무부장과 교류협력실장, 교무부원장, KCRP종교간 대화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공항경찰단 지도법사와 서울 은평구 초대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그래도, 가끔〉 등이 있다.

팔순 맞은 불자, 동국대에 1억원 쾌척

이정안 씨 기금 전달
"혜광원 불사 써 달라"

팔순을 맞은 신실한 불자가 동국대에 1억 원을 쾌척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3일 정각원에서 불자 이정안 씨의 동국대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 신자인 기부자를 위해 특별히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 법회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달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묘주 스님,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구암사 도희 스님, 기부자 이정안 씨, 딸 기현숙 씨가 참석했다.

기금 전달 후 이 씨는 "불자로서 조계종립 동국대에 기부하게 돼 기쁘다. 예전부터 팔순이 되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비구니스님의 기숙사 재건립에 요긴하게 잘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안 씨와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정각원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총장 보광 스님은 "보살님의 큰 결심에 총장으로서 힘이 된다. 특히 가족들이 기부를 동의해주신데 많은 감사드린다"며 "미래 한국불교를 책임질 훌륭한 비구니 스님 양성에 보탬이 될 기숙사 재건축 불사에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 씨가 전달한 기금은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의 재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기무사에 '평화의 불' 봉안

조계종 군종교구, 한반도 평화 기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군법당 108평화순례단은 2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통일호국사에서 '부대 안정과 한반도 평화기원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108평화순례단원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해 평화의 불 분등과 평화의 비를 제막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태고종 대전 · 전북종무원 합동으로



태고종 대전종무원과 전북종무원은 2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이 참여해 3600여 장병들에게 오계를 설한 뒤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길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

나눔실천승가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후원하는 나눔실천승가회(회장 호산 성보)는 2월 7일 총본산 창원 불광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사랑실은교통봉사대(지대장 홍의주)에 전달했다. 회장 호산 성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금이다. 영 · 유아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시설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제12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